

목양의 기원

양이라는 동물이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여 어떠한 진화과정을 통하여 오늘날의 메리노양과 같이 진화되었느냐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더듬는 것과 같아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나 영국의 노퍽(Norfolk)지방에서 발견되었던 양의 뿔 화석을 놓고 추정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약 50만 년 전부터 양이 이 땅 위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후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영국에서만 살고 있던 것이 아님이 증명되기도 하였다.

양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1500만 년 전 유럽이나 서남아시아 지역에 떠돌아다녔던 영양(羚羊)이 그 원형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으며, 그 후에 소나 양, 산양 등으로 분화되어 갔으리라는 견해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고대 양의 원류는

- (1) 서남 아시아의 우리알(Urial, 학명 *Ovis Laristanica* 와 *Ovis Orientalis*)양
- (2) 중앙 아시아의 아갈리(Argali 학명 *Ovis Ammon*)양
- (3) 남유럽의 무프론(Mouflon, 학명 *Ovis Musimon*)양
- (4) 북미 록히드 산맥에 살고 있는 빅 혼(Big Horn, 학명 *Ovis Canadensis*) 양의 4종인데,

이 중에서 빅 혼 양은 가축화되지 못한 채 야생 양으로 그대로 남아 있으나 매년 그 숫자도 줄고 있다.

신석기 시대 후반 스위스의 호숫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미 양을 가축화하고 있었다는 발굴 보고가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양은 체구가 대단히 작았다고 한다.

한편, 본격적으로 양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중류를 가로질러 이란의 고원에 이르는 "비옥한 반달형 지대"의 바빌로니아 지방의 여기저기에서 발견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착 농촌 유적에서의 밀, 보리 등의 재배와 함께 양 또는 산양이 사

육되던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말하자면 기원전 6천년 이상의 오래된 옛 이야기다.

이때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에서 활동하던 페니키아인들은 항해술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능숙하여 지중해를 이용하여 유럽으로의 양의 수출까지도 꾀하고 있었으며, 후에 메리노 왕국을 건설한 스페인에도 이 페니키아인들이 양을 갖고 갔다고 한다.

희랍의 유명한 "황금 양모의 전설"에서 당시의 영웅 이아손(Jason)이 아르고호를 타고 콜키스(Colchis)를 침략한 목적이 황금 양모(Golden Fleece)의 약탈이었다니까 3천 5백년 전에도 양모가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었나 하는 것을 잘 설명하여 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성경에도 무수히 양이 등장하는데,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은 (인간을 제외하고는) 양이다. 창세기 2장에도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1800년경, 이집트 제 18왕조가 구축한 카르낙(Temples of Karnak) 신전의 숫양의 머리 그림은 이미 양의 사육이 일반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팔레스티나 남부나 요르단 강 동쪽의 비옥한 평야가 목축에 적합하였다는 것과 양치기들은 목초를 따라 여기 저기 유목을 이어갔다는 것이며, 당시의 목양은 양모의 채취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삼았는데, 양모는 요즘처럼 깎지 않고 그냥 몸에서 뽑았다고 한다.

양모 외에는 시리아에서는 뿔을 갖고 악기를 만들었고, 희랍에서는 화장용 기름을 만들었는데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가죽으로 옷을 만들거나 가죽의 물주머니를 만들고, 양젖으로는 밀크나 술 또는 치즈 같은 것을 만들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가장 먼저 양의 품종 개량에 손을 댄 사람은 야곱이며, 그는 다갈색이나 흑색 양의 털을 백색이나 얼룩 양으로 개량하였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영국에서는 얼룩 양을 야곱(제이콥)이라고 하며, 이 야곱의 후손들은 다비드 왕 시대에 들어와서는 순백색의 양모를 생산하는 양으로 개량을 끝냈다. ♣ (공석봉)



<Urial>



<Argali>



<Mouflon>



<Big Horn>



<Temples of Karnak>



<Jacob sheep>